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두 개의 태양



가자
한눈팔지 말고
똑바로 가자

두 개의 태양이
우리를 지켜준다

지혜와 진리의 태양
자비와 사랑의 태양

가자
영원의 하늘로
어서어서 가자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마차' 그림이다. 이 그림이 돋보이는 이유는, 두 개의 태양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하나의 태양이 새겨진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일곱 개의 태양을 찾았고, 세 개의 태양, 다섯 개의 태양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두 개의 태양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진도 대충 찍고 탁본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가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옆에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마차' 그림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아차!' 싶었다. 두 개의 태양과 '하늘마차' 두 영역이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그림이었는데 그것을 생각지 못했다.

싸이말루이 따쉬에서는 '하늘마차' 그림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런 그림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이곳은 보통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종교적 기능을 담당했던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다. 김호석 교수는 "암각화는 일종의 종교화(宗教畵)"라고 말했는데, 특히 싸이말루이 따쉬의 암각화를 보면 그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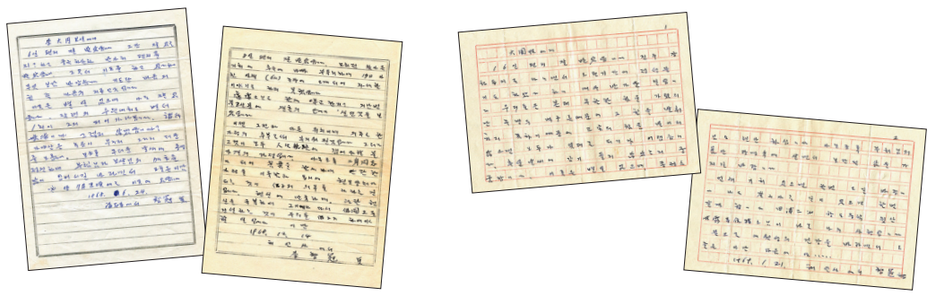
일상의 삶을 넘어선, 영혼의 향상(向上)을 향한 간절한 염원(念願)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올곧게 하는 등불이 되고 있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⑯ 지관 스님 2

늘 부처님 法으로 말씀하신 스님



〈서신 1〉
대원성에게
16일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진주 강화 등지로 다니면서 오랜 기간에 정성껏 기도하였다니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무한한 힘을 가졌지만 무명의 먹구름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을 빌리지 않으면 모두가 뜻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은 별일 없으며 종정스님도 편안하십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품안 광명속에 살면서 보람된 삶을 가지길 바랍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오길 바랍니다. 나도 부산 가는 길 있으면 한번 갈까 합니다. 진포 2동 항도중학 뒷산 감로사 주지스님이 바로 나의 사형입니다. 끝으로 대원성의 건강을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다음에 또. 1969. 1. 21. 해인사에서 지관 회답

〈서신 2〉
8일 편지 잘 받았습니다. 모처럼 찾아 온 기회에 추수에 바빠 부득하게 17일 아침 일찍(6시) 농장에 오게 되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 처사님도 함께 무고한지? 지난번 불교신문에 결혼의 안내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젠 그전과 다른 위치이며 의무도 한 가정의 주부로서 무거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人生行路(인생행로)에 겪어야 할 불가결의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二身同志(이신동지)가 되어 苦樂(고락)을 함께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룩함과 동시에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불자의 의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또한 현실을 극복하여 거기에 다시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들 불자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만. 1969년 12월 14일 해인사에서 이지관

지관 스님은 1967년 부산불교 청년수련회에서 처음 뵈었다. 인연을 짓고 난 후에 부산에 오실 때면 늘 찾아주셨다. 연꽃모임에 각별히 마음을 써주셨다. 회원들의 법명도 많이 지어주셨고 연꽃모임 특별법회 때에도 법문을 해주셨다. 새로 나온 책이나 공부가 될 만한 것들이 보이면 연꽃모임 회원들에게 그때그때 부쳐주셨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셨다.

스님은 처음 뵈었을 때부터 특별한 인상이었다. 항상 한 손에는 펜을 들고 계셨다. 늘 글을 쓰고 공부하며 사셨다. 항상 뵐 때마다 좋은 법문 주시려고 애쓰셨다. 무엇이든지 부처님 말씀으로 이야기해서 대중을 부처님 가까이로 데려다 주셨다. 짧은 서신이지만 서신 한 번 주실 때에도 늘 짧은 법문 한 줄이 빠진 적이 없었다. 〈서신 1〉은 해인사 수련대회 후 진주 응석사와 강화 보문사 기도를 마치고 부친 서신에 대한 답신이다.

스님이 동국대 총장으로 계셨을 때, 일타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지관 스님은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동국대학교 총장 자리에 있는, 그야말로 자격이 있는 스님이야"

스님은 우리 부부가 불교청년회에서 만났다는 것에 늘 각별한 마음을 써주셨다. 해인사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길목에서 스님을 만난 적이 있다. 옷에 잔뜩 흙을 묻히고 논에서 혼자 울력을 하고 계셨다. 날이 저물어 돌아가려는 참이었다고 하시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격의 없는 모습에 마음이 훈훈했던 기억이 난다. 스님께서는 결혼한 후부터 더 많이 마음을 써주셨던 것 같다. 늘 우리 부부의 행복을 기원해 주셨다. 말이든 마음이든 늘 부처님 법으로 전해주셨던 스님의 모습이 그립다.



1981년 연꽃모임에서 법문하는 지관 스님. 항상 뵐 때마다 좋은 법문 주시려고 애쓰셨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